



하루에 하나



2026.3.13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81.35원 (+14.85원)

KOSPI

5,583.25 (-26.70, -0.48%)

KOSDAQ

1,148.40 (+11.57, +1.02%)

국고채 10년 금리

3.649 (+0.041%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Global Macro Alert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미국 소비자물가 영향 [전규연]
Global Quant	옵션을 통해 바라본 미국-이란 전쟁의 자산별 영향 [이철현]

기업분석

SK텔레콤	이번엔 기대가 되는 4월입니다 [김홍식]
RF머트리얼즈	광모듈 수요가 끝이 없다 [김홍식]
피에이치에이	자기주식 7.0% 보유 중 [송선재]
삼성전자	실적 상향과 밸류업 기대감 [김록호]
두산밥캣	[탐방노트] 연간 가이드نس 달성 가능성 충분 [채운샘]

산업분석 Weekly

유틸리티	유연탄과 미국산 LNG 원가 우위 국면 [유재선]
------	-----------------------------

단기투자유망종목

키움증권, 포스코인터내셔널, 한화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알지노믹스, 씨엠티엑스, 덕산하이메탈

2026년 3월 13일 | Global Asset Research

Economy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Macro Alert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미국 소비자물가 영향

국제유가 상승이 미국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미국 2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비 0.3%, 전년비 2.4%로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금번 결과에 유가 급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강화되며 선물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연내 1회로 줄어들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고유가 국면이 1~2개월가량 지속될 경우 미국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미국 소비자물가에서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이며, 그중 유가 상승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휘발유의 비중은 2.9%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휘발유 리테일 가격은 갤런 당 \$3.5에 이르며 전쟁 이전보다 60센트 올랐다. 통상적으로 휘발유 가격은 유가 상승분을 절반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유가가 40% 상승한다면 휘발유 가격은 20% 오른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계적으로 휘발유의 소비자물가 내 차지 비중과 가격 상승률을 곱하면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0.58% 오르게 된다. 휘발유를 제외한 나머지 유종의 경우, 항공료 인상 등 간접적 경로를 통해 물가가 서서히 오른다.

유가 충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통화정책 경로를 바꿀 수 있을까?

물가 상승이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바꾸려면 그 충격이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1990년 이후 유가 상승에 따른 미국 소비자물가의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소비자물가 상승은 2~3개월 내로 소멸돼 일시적이었고, 근원 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공급망 교란은 공급측 물가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물가 상승이 장기화 되려면 에너지 가격 부담으로 인해 임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며 수요측 물가 상승이 함께 높아져야 하는데, 현재 미국 경제는 임금을 높여줄 만큼 노동시장이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 경로로 파급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인플레이션 경계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경로는 유효

당장 3월 지표부터 물가 상승이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미 연준은 3월 FOMC에서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미 연준이 통화정책을 통해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수요측 물가 압력이라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다. 오히려 금번 충격 이후 높아진 생활물가 부담으로 중장기적인 수요측 물가 압력은 낮아질 수 있어 연내 금리 인하 경로는 유효하다고 본다. 하나증권은 올해 두 차례(6월, 9월) 금리 인하 경로를 유지한다.



Economist 신규연 kyuchun@hanafn.com

2026년 3월 13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Quant

옵션을 통해 바라본 미국-이란 전쟁의 자산별 영향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과 Risk Reversal로 주식과 금의 리스크 방향 구별

최근 글로벌 증시는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 속에 금융시장의 자산 전반에서 가격 변동성이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변동성을 자산별 ETF의 옵션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투자자들이 어떤 방향의 리스크를 얼마나 비싸게 거래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과 상하방 리스크의 헷지 수요를 뜻하는 Risk Reversal의 두가지 축이 분석 대상이다.

S&P 500과 금의 ETF 옵션으로 계산된 25 Delta Risk Reversal을 보면, 대체로 주식은 '+'이고 금은 '-'이다. 주식이 가진 하방 위험의 헷지 수요와 금의 안전 자산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주식은 하락에 대한 공포가 크고 금은 그 자체로 리스크 헷지 수단이기 때문이다. 최근 금이 달러를 대체하거나 더 나은 헷지 수단으로 부상하며 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리고 이는 금이 가지는 위험의 방향성을 일부 바꾸어 놓았는데, 금 ETF 옵션의 Risk Reversal이 중립 수준으로 동반 상승한 점에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금의 위험이 전보다 양방향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상방만이 아니라 하방 위험도 고려해야 하는 중립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ss Asset Option Repricing Map으로 자산별 위험 인식의 변화 분석

각 자산의 ETF 옵션을 통해 자산별로 시장의 위험에 대한 인식의 이동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Cross Asset Option Repricing Map을 작성했다. 전쟁 직후와 현재 시점에서의 변화를 기록하여, 보다 동적인 변동성 및 헷지 수요에 대한 이동을 표시했다. 자산 간의 전반적인 변동성 수준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각 자산의 5년 Rolling의 백분위 수준을 계산하여 과거 대비 수준이 어떠한지를 나타냈다.

이미 M7과 IT 섹터의 부진으로 하방 헷지 수요가 높아 단순히 변동성만 상승한 대형주와 달리 소형주는 변동성 상승과 더불어 하방 수요 헷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는 전쟁의 충격이 경기 민감 부문의 약세를 이끌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더불어 장기채권의 하방 헷지 수요도 상승해 옵션 시장은 금리 인상 우려 또한 반영했다.

달러는 전쟁 이후 안전 자산 선호 심리로 상승했으나, 이러한 위험 회피 심리의 일방적 강세보다 기존에도 높았던 하방 헷지 수요가 극단적인 수준까지 더 증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달러 약세 기조와 함께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일부 일단락되면서 언제든지 약세 전환할 수 있다는 심리가 내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에 대한 tail risk를 각 자산이 다르게 반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옵션의 가격 구조에서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가 자산에 주는 충격이 각기 비대칭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읽힌다.



Analyst 이철현 lch2678@hanafn.com

2026년 03월 13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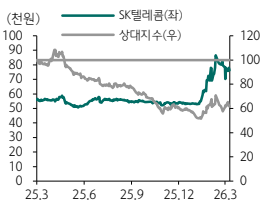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100,000원
현재주가(3.12) 76,2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5,583.25
52주 최고/최저(원)	86,500/50,700
시가총액(십억원)	16,367.0
시가총액비중(%)	0.36
발행주식수(천주)	214,790.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336.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92.2
외국인지분율(%)	38.60
주요주주 지분율(%)	
SK 외 9인	30.59
국민연금공단	7.45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7,166.7	17,743.9
영업이익(십억원)	1,063.9	1,864.9
순이익(십억원)	362.7	1,251.8
EPS(원)	1,695	5,706
BPS(원)	54,000	57,430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P	2026F
매출액	17,608.5	17,940.6	17,099.3	17,816.1
영업이익	1,753.2	1,823.4	1,073.2	1,878.8
세전이익	1,488.2	1,761.8	722.2	1,558.8
순이익	1,093.6	1,250.2	408.3	1,150.2
EPS	4,997	5,810	1,901	5,355
증감율	19.86	16.27	(67.28)	181.69
PER	10.03	9.50	28.14	14.23
PBR	0.94	1.01	0.97	1.30
EV/EBITDA	3.87	3.73	4.29	3.98
ROE	9.63	10.83	3.47	9.48
BPS	53,424	54,898	55,418	58,393
DPS	3,540	3,540	1,660	3,6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SK텔레콤 (017670)**이번엔 기대가 되는 4월입니다****매수/TP 10만원/통신업종 탑픽 유지, 1분기 배당 발표 전 매수 추천**

SKT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10만원을 유지하며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 Top Pick으로 제시한다. 추천 사유는 1) 2026년 1분기 DPS 발표를 계기로 2026년 SKT 배당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상승이 예상되고, 2) 전세계적으로 5G SA 도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높은 편이며, 3) 비과세배당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배당수익률이 4.7%에 달해 4월 이후 본격적인 배당 매수세 유입이 기대되고, 4)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 향후 매수 여력이 큰 상황이며, 5) 상반기 국책 AI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AI 펀드 편입 비중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분기 DPS가 4월 중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800원에서 900원 사이로 발표될 것임을 감안하면 4월 중순까진 SKT 매수에 나설 것을 권한다.

5G SA 도입 기대로 Multiple 상승/배당수익률 하락 기조 이어질 전망

통신주 투자에 있어서 고민스러운 부분은 DPS 추정치에 큰 오차가 발생하거나 방향성이 달라질 경우도 문제지만 현 시점에서 적정 기대 배당수익률을 예측하는 작업일 수 있다. 기대 배당수익률이 3%이냐, 6%이냐에 따라 주가는 2배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SKT의 배당 정상화도 이슈이겠지만 기대 배당수익률이 3%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과거 LTE, 5G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그렇다. 5G SA에서 6G로 이동하는 2026~2030년 모습은 2009~2013년 3.5G에서 4G로 넘어가는 모습과 흡사한 형태를 띠는 것이다. 사실상 초창기 5G가 실패한 서비스로 굳어지는 가운데 6G로 진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5G SA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면 SKT 기대배당수익률이 LTE 도입 당시처럼 내려갈 수 있는데 3%가 깨질 수 있다고 보면 여전히 SKT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판단이다. 2026년 DPS가 3,600원이라고 가정하면 10만원 이상에서의 주가 형성은 당연해 보인다.

올해 통신서비스 주도주는 SKT, 시가총액 1등은 지속될 것입니다

과거 2025년 여러 자료를 통해 SKT가 통신 섹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지난해 SKT는 KT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주주환원총액이 KT보다 낮아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26년에는 SKT가 통신섹터 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주주환원 규모에서 3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5년 이상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배당금 수준 및 자사주 소각분만 투자자들이 주주환원금액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보면 7,500억원 이상의 주주환원이 유력한 SKT가 경쟁사대비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올해는 통신사 시가총액 1위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2026년 03월 13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목표주가(12M) 8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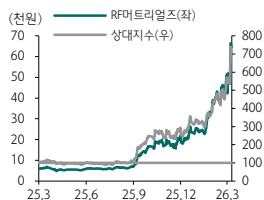
현재주가(3.12) 64,4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1,148.40
52주 최고/최저(원)	66,500/4,840
시가총액(십억원)	543.6
시가총액비중(%)	0.09
발행주식수(천주)	8,441.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17.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1.9
외국인지분율(%)	8.19
주요주주 지분율(%)	
알에프에이이씨 외 9인	50.63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60.2	90.0
영업이익(십억원)	6.7	12.9
순이익(십억원)	7.0	11.6
EPS(원)	611	1,250
BPS(원)	5,521	7,287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47.9	44.5	63.9	92.7
영업이익	(0.0)	(1.5)	7.3	14.5
세전이익	0.4	(7.5)	8.2	16.4
순이익	(0.7)	(4.8)	7.0	12.8
EPS	(80)	(568)	833	1,515
증감율	적전	적지	흑전	81.87
PER	(133.00)	(8.41)	27.43	42.51
PBR	2.02	0.94	3.80	8.56
EV/EBITDA	25.76	19.96	17.24	29.78
ROE	(1.53)	(11.22)	15.65	23.20
BPS	5,259	5,102	6,009	7,519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l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RF머트리얼즈 (327260)**광모듈 수요가 끝이 없다****RF머트리얼즈 투자이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80,000원 유지**

RF머트리얼즈 투자이견 매수, 목표주가 80,000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AI로 인한 트래픽 증가 양상을 보면 빠른 시일내에 서버내 구리선이 CPO로 완전 대체될 것이고, 2) 광증폭기 수요는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요 공급자인 중국 광모듈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퇴출되어 공급 솟지도 예상되며, 3) 최근 설비 확충을 감안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50% 이상의 높은 매출 성장세가 전망되고, 4) 26년 FWD PBR 기준 8배로 글로벌 피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광모듈이 서버내 구리선을 완전 대체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CPO 시기상조론이 나오고 있다. 브로드컴 실적발표에서 경제성 때문에 스케일업 용도로는 CPO가 아닌 구리선을 가능한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지컬 AI로 생성되는 트래픽과 구리선 특성을 감안하면 향후 스케일업에서도 CPO가 구리선을 완전 대체할 수 밖에 없다. 구리선은 물리적 특성상 주파수 대역폭이 클수록 신호 감쇠가 커진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고대역폭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비례하여 신호가 더 많이 감쇠되는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노이즈가 많이 섞여서 감쇠된 신호가 제대로 복구되지 못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AI서버 내부 구리선 길이는 2m로 한정되고, 1.6Tbps 수준에서는 1m에도 못 미쳐서 랙 하나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400Gbps 수준으로도 AI 서버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구리선이 AI 서버에 채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피지컬 AI 트래픽은 현재 LLM 트래픽보다 수천배는 더 커서 구리선으로는 감당이 안된다. 빠른 시일안에 CPO가 구리선을 완전히 대체할 수 밖에 없다.

펌프레이저형 생산 설비 확충, 올해도 작년 이상의 매출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최근 RF머트리얼즈가 생산 시설을 확충한 것도 결국 CPO 장기 업황이 좋기 때문이다. RF머트리얼즈 가동률은 30~50%로 추정된다. 상장시 RF머트리얼즈의 가동률 데이터, 현재 별도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통신용 패키지 부문 매출액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 지금보다 2배는 더 생산할 수 있는데도 설비를 확충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광모듈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다. 일단 서버 CAPEX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구리선이 광으로 전환 중인걸 감안하면 실제 펌프레이저 수요 증가율은 서버 증가율보다 가파를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 광모듈 업체가 퇴출되고 있다. 실제로 CPO 호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광모듈 업체 매출 컨센서스는 성장세가 꺾였다. 매출 컨센서스 대폭 상향 중인 미국 업체와는 대조적이다. 중국 퇴출로 인한 공급 솟지까지 감안하면 RF머트리얼즈는 여러겹의 수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상을 넘는 큰 폭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당분간은 계속 주가 상승하는 그림이다.

2026년 3월 13일 | 기업분석_Preview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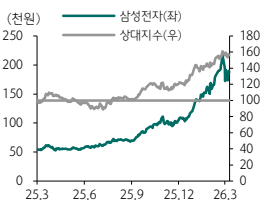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300,000원(상향)
현재주가(3.12) 187,9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5,583.25
52주 최고/최저(원)	218,000/53,000
시가총액(십억원)	1,112,300.0
시가총액비중(%)	24.14
발행주식수(천주)	5,919,637.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0,437.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822.6
외국인지분율(%)	49.77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생명보험 외 15 인	19.77
국민연금공단	7.7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512,414.5	564,381.7
영업이익(십억원)	189,386.7	213,418.3
순이익(십억원)	158,290.6	182,486.0
EPS(원)	23,341	26,561
BPS(원)	85,803	111,515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00,870.9	333,605.9	583,252.1	675,450.2
영업이익	32,726.0	43,601.1	229,143.3	303,957.6
세전이익	37,529.7	49,481.5	233,807.1	307,447.8
순이익	33,621.4	44,261.0	183,715.6	241,579.3
EPS	4,950	6,564	27,275	35,866
증감율	132.29	32.61	315.52	31.50
PER	10.75	18.27	6.97	5.30
PBR	0.92	1.87	2.12	1.53
EV/EBITDA	3.60	7.67	3.68	2.32
ROE	9.03	10.85	35.98	33.92
BPS	57,930	63,976	89,614	123,845
DPS	1,446	1,668	1,668	1,668



Analyst 김록호 rookkim@hanafn.com
RA 김영규 kug1019@hanafn.com

삼성전자 (005930)**실적 상향과 밸류업 기대감****1Q26 Preview: 영업이익 재차 상향**

삼성전자의 26년 1분기 매출액을 122조원, 영업이익을 38조원으로 상향한다. DRAM 및 NAND 가격이 당초 예상치를 재차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정을 상향 조정했고, 환율도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서버를 필두로 모든 응용처항 가격이 예상보다 견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메모리 부문의 영업이익은 36조원으로 전사 실적을 견인하고, 전사 내 비중은 9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고객사들로부터 장기 공급 계약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향후 가격 상승 여력을 감안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고객사향 HBM4 공급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영업이익은 229조원으로 상향

메모리 가격 상향 조정을 통해 2026년 연간 영업이익도 229조원으로 상향한다. 1분기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원가 부담 또한 가중되었다. 하나증권은 2분기부터는 B2C 고객사를 중심으로 가격 저항 또는 주문 강도가 약해질 것을 우려한 바 있다. 다만, 스마트폰 업계 2강 업체들이 원가 부담 구간을 점유율 확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2분기에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 흐름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가격을 1분기와 2분기 모두 상향 조정하며, 메모리 부문의 영업이익을 기존 192조원에서 223조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밸류업 및 주주가치 환원 정책도 기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30만원으로 상향한다. 2026년 영업이익을 상향했고, 최근 메모리 업체들의 가격 상승을 반영해 Target EV/EBITDA를 기존 5.2배에서 5.7배로 상향했다. 일반 DRAM 중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적 상향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HBM 경쟁력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받을 이유가 제거되었다. 아울러 2026년 FCF를 감안하면, 주주환원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92.5조원으로 전년대비 389% 증가한다. 해당 재원을 2025년 배당과 자기주식 취득 비율(배당 58%/자기주식 42%)로 계산하면, 배당금은 전년대비 381% 증가한 8,029원, 배당수익률(3.12 증가 기준)은 4.3%에 달하게 된다. 사업보고서를 통해 알려진 상반기 자사주 소각을 고려하면, 배당금은 전년대비 388% 증가한 8,135원, 배당수익률은 4.3%로 동일하다.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병행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배당금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 상향과 직결된다. 아울러 자사주를 활용한 별도의 밸류업 가능성도 상존하기에 실적, 밸류에이션, 모멘텀을 모두 확보한 상황이라 판단한다.

2026년 3월 13일 | 기업분석_Update

Not 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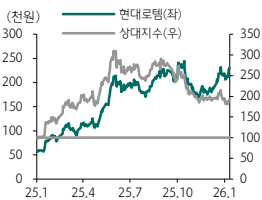
현재주가(3.12) 60,7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5,583.25
52주 최고/최저(원)	67,000/41,000
시가총액(십억원)	5,818.5
시가총액비중(%)	0.13
발행주식수(천주)	95,856.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69.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9.2
외국인지분율(%)	37.28
주요주주 지분율(%)	
연대자동차 외 3인	48.24
국민연금공단	7.3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9,155	9,533
영업이익(십억원)	739	872
순이익(십억원)	512	618
EPS(원)	5,343	6,445
BPS(원)	78,068	82,366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5,816	8,622	9,759	8,551
영업이익	595	1,072	1,390	871
세전이익	521	886	1,257	798
순이익	386	644	921	563
EPS	3,849	6,425	9,192	5,620
증감율	56.0	66.9	43.1	(38.9)
PER	10.6	5.4	5.5	7.5
PBR	0.9	0.7	0.8	0.6
EV/EBITDA	6.5	3.3	3.1	3.8
ROE	8.9	12.8	15.5	8.2
BPS	43,105	50,133	59,439	69,467
DPS	1,200	1,350	1,600	1,600



Analyst 채운샘 unsam1@hanafn.com

두산밥캣 (241560)**[탐방노트] 연간 가이드نس 달성 가능성 충분****북미 중심의 소형장비/산업차량 기업**

두산밥캣은 1947년 미국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1960년 세계 최초로 스킵드-스티어 로더를 개발/출시했다. 1962년에는 Bobcat 브랜드를 도입했으며 1986년 북미 최초로 소형 굴착기를 출시하여 소형장비 라인업을 확장했다. 2000년에는 사명을 Bobcat Company로 변경했고 2007년 두산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2016년 코스피 상장은 완료했다. 이후에는 인수합병을 통한 비유기적 성장에 주력했다. 2020년에는 BOB-CAT Mowers, Steiner, Ryan 인수를 통해 조경 장비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2021년에는 두산산업차량 인수를 통해 산업차량 부문 역량을 강화했다. 2024년에는 건설장비 및 산업장비용 유압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두산모트롤을 인수했다. 한편 제품별 매출비중은 소형장비 53%, 부품/어태치먼트 17%, 산업차량 16%, 농업/조경용 장비 9%, 포터블 파워 5%이다.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인수합병을 통해 소형장비에 대한 실적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2025년 기준 지역별 매출비중은 NA 75%, EMEA 16%, ALAO 9%로 북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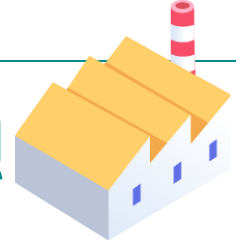
전방산업 조정 국면 지속. 관세 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

두산밥캣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방산업은 건설시장이다. 건설시장은 주택시장과 공공 인프라, 제조업 공장 등 비주택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미 건설기계 수요는 2021~2023년 팬데믹 기간 공급망 병목에 따른 이연 수요와 바이든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힘입은 비주택 건설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강한 업사이클을 보였다. 다만 현재는 주택/비주택 건설지출 모두 2024년 고점 이후 정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25년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종 조립이 미국에서 이뤄지더라도 일부 핵심 부품은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미지역 경쟁사들 역시 유사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두산밥캣은 판가인상과 비용 절감을 통해 관세 영향을 일부 상쇄하고 있다. 또한 3월 완공 예정인 멕시코 공장은 향후 관세와 원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2026년 연간 가이드نس 달성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판단

2026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가이드نس는 각각 8.8조원, 0.7조원으로 제시됐다. 전년대비 각각 0.2%, 4.4% 감소한 수치이다. 다만 가이드نس에 반영된 가정들이 보수적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환율의 경우 원/달러 1,360원, 북미 시장 수요는 역성장이 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달러 재고는 적정 수준을 소폭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종합하면 연간 실적 가이드نس 달성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향후 실적 컨센서스 상향 조정의 변수는 북미지역의 추가 판가 인상 여부와 전방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 금리인하 횡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연탄과 미국산 LNG 원가 우위 국면



유틸리티 Weekly | 2026.03.13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0.8% 상회했다. 11일 증가 기준 WTI는 86.8달러/배럴(WoW +16.4%), 미국 천연가스는 3.2달러/mmbtu(+10.2%), 아시아 LNG 현물은 16.0달러/mmbtu(+5.8%), 호주산 유연탄은 133.1달러/톤(+1.1%), 원/달러 환율은 1,477.9원(+1.1%)을 기록했다. 중동 분쟁 이후 두바이와 브렌트의 가격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
- 이란과 미국-이스라엘의 휴전이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3월 31일까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측되는 중이다. 하지만 상황은 조기 종료와는 거리가 먼 국면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휴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란이 요구하는 조건과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1~2주의 기간이 중요한 상황이다.
- 한국 입장에서 LNG 수급 차질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석탄이다. 원자력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예방정비일정에 의해 일정 기간 가동정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크게 변하기는 어렵다. 만약 1개 분기 가량 정비 일정 순연이 가능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용률 제고 관점에서 기여도가 크지 않다. 한편 유연탄의 경우 연간 이용률이 50%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여력이 존재한다. 물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유연탄의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유연탄 비중을 높이려면 무탄소 전원의 비중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정지 상태에서 정상 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낮은 부하로 가동하더라도 LNG의 유연성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ESS가 계통 자원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면 LNG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인 여력은 제한되는 구조로 판단된다. 결국 LNG 가격이 오르면 전력시장의 원가가 오르게 되고 만약 석탄이 가스를 대체한다면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비례해서 감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SMP는 우상향 기조가 나타날 것이다.
- 노후 석탄 폐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복합화력 정비 물량이 한전KPS와 민간정비업체 중 어느 곳이 담당하게 될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업체의 석탄 설비 정비에 대한 실적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신규 복합화력 정비 시장이 공기업 중심으로 형성될 경우 민간업체의 점진적인 외형 감소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
- 이번 달 안에 정부 해상풍력 입찰이 재개될 전망이다. 육상풍력의 경우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공공주도형과 일반 해상풍력 입찰로 구분되며 일반 입찰 시장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 입찰도 시행된다. 과거 발전사업자의 경우 입찰 참여 시 사용 공급망을 사업내역서에 기재했기 때문에 제조사와의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 불리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입찰부터는 기재된 기자재와 '동급 이상' 기자재로 변경이 허용되어 발전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어 프로젝트 단가 하락에 기여가 가능하다. 외국산 공급망을 사용해도 국내 생산 요건, 적정 가격을 갖출 경우 지난 입찰과 다르게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상반기 입찰에서 떨어지더라도 하반기 재도전이 가능해진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5) 가격은 12일 증가 기준 15,150원으로 전주대비 9.8% 상승, YTD 45.7% 상승했다.

종목 코멘트

- SK가스(Top Pick): 최근 원자재 가격 실적에 우호적. LPG와 아시아 LNG 현물 격차 작아 읍셔널리티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
- SGC에너지(Top Pick): 유가 대비 유연탄 가격은 덜 오르는 국면. 현재 상황 지속 시 3분기부터 발전 부문 마진 개선 가능
- 지역난방공사: 유가 대비 미국 가스 가격은 제한적 변동. 3분기 개별요금제 강점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지만 최대 비수기
- 한국전력: 환율, 유가, 유연탄 가격 모두 우상향 흐름. 현재 지표 수준 유지 시 3분기 SMP 160원/kWh 수준으로 상승 가능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키움증권 (039490.KS)	3/9	435,500	450,000	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SDAQ 중심으로 개인 매수세가 본격화될 경우, M/S 반등 가능성 높아 • 3월 중 2개년 주주환원 정책 발표 예정되어 있어 배당 확대 기대감 유효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KS)	3/9	73,300	79,500	8.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Senex 가스전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판매 증가로 에너지 실적 개선 기대 • 신규 팜 농장 인수 및 정제 사업 확대에 따른 식량 사업 규모 확대 기대
한화솔루션 (009830.KS)	3/9	51,800	53,000	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태양광 모듈 ASP 상승과 IRA 기반 AMPC 효과 확대에 따라 수익성 개선 본격화 • 2027년 추정치에 중국업체 Valuation 적용 시 목표 시총 11조원 가능
에코프로비엠 (247540.KQ)	3/9	202,500	197,700	-2.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Q25 Review 매출액 4,992억원(YoY +7.0%), 영업이익 410억원(YoY 흑자전환) 기록 • 3월 초 CEO 주관 미래 기술 로드맵 발표 및 인터배터리 2026 기대감
알지노믹스 (476830.KQ)	3/9	164,200	179,600	9.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NA 기반 유전자치료 플랫폼을 바탕으로 희귀질환·항암 분야 파이프라인을 확장 중 • 기존 DNA 교정 대비 정밀도·안전성 차별화를 통해 기술이전(L/O) 가능성 부각
씨엠티엑스 (388210.KQ)	3/9	150,200	142,100	-5.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공정 확대에 따른 Si Parts 수요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실적 성장 기대 • NAND 뿐만 아니라 TSMC를 통해 파운드리 선단 공정에 납품 중
덕산하이메탈 (077360.KQ)	3/9	11,850	14,130	1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FCBGA 수요 증가에 따른 패키징 소재 증가 • 저수익성 Paste 제품을 상대적 고수익성 제품으로 재편하는 것을 추진 중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93%	+1.63%p	+56.47%	+25.5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두산에너지(034020.KS)	3/9	98,000	103,500	5.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2026년 에너지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13.3조원 제시
POSCO홀딩스(005490.KS)	3/9	353,500	347,500	-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KS)	3/9	73,300	79,500	8.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Senex 가스전 증산과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판매 증가로 에너지 실적 개선 기대 신규 팜 농장 인수 및 정제 사업 확대에 따른 식량 사업 규모 확대 기대
이수스페셜티케미칼(457190.KS)	3/9	105,100	97,400	-7.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고체 배터리 소재 '황화리튬' 대량 제조 가능한 국내 유일 업체 전고체 배터리, 휴머노이드 산업 개화와 맞물리며 조기 상용화 기대감 상승
RF머트리얼즈(327260.KQ)	3/9	51,900	64,400	24.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데이터센터용 광통신 패키지(루멘텀양 포함) 수요 급증으로 실적 개선 기대 중국산 부품 제재 및 피지컬 AI 시대 통신용 광모듈 수요 확대 기대
KB금융(105560.KS)	2/9	149,300	149,200	-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분기 실적의 특징은 수수료이익 대폭 증가, 기말배당 큰폭 확대, 주주환원 재원 확보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총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도 긍정적 요인
키움증권(003940.KS)	2/9	405,000	450,000	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기아(000270.KS)	1/12	133,200	167,000	25.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셀토스 플체인지 모델 출시 및 판매 본격화로 신차 효과 통한 물량 확대 지속 기대 이익 개선 및 그룹미래 모빌리티 사업구체화 통한 밸류업 기대
삼성전자(005930.KS)	1/2	119,900	187,900	56.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000660.KS)	1/2	651,000	930,000	4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4Q25 Review 매출액 32.8조원(YoY +66.0%), 영업이익 19.2조원(YoY +137.0%) 기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한국항공우주(047810.KS)	1/2	114,400	179,800	5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회성 비용 부재와 완제기 수출 부문의 일시적 믹스개선으로 3Q25 수익성 개선 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S-Oil(010950.KS)	1/2	83,000	118,000	4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공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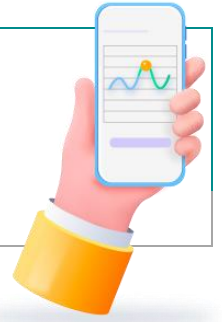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1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2.23%	+1.27%p	+32.23%	+1.2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26,940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3,910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24,530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0,960	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QDF (미국 퀄리티 배당 주식)	2026.02.02	82.93	81.45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량 배당주 선별 투자. 미국 상장 기업 중 펀더멘털(수익성, 경영 효율성, 현금흐름)이 우수하면서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퀄리티' 기업들로 구성 정책 변화와 금리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은 하락 방어력이 높음. 성장보다는 안정성과 현금 창출에 집중하는 균형적 역할 기대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6.98	2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401.03	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4.73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8	3.9	3.10	3.11	3.12	3.13	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1월 BOP 경상수지 (¥941.6b, 12월¥728.8b) 중국 2월 전년대비 CPI (1.30%, 1월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4분기 전기대비/전년 동기대비 GDP 발표 (-0.2%/1.60%, 3분기-0.3%/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2월 전월대비/전년 대비 CPI 발표 (0.3%/2.4%, 1월 0.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3월 첫째 주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 (E 215K, 이전치 213K)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발표 (E 54.6, 2월 56.6) 	
3.15	3.16	3.17	3.18	3.19	3.20	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2월 전월대비 광공업 생산 (E 0.3%, 1월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1월 전월대비 3차 산업지수 (E --, 12월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FOMC 금리결정 (E 3.50~3.75%, 이전치 3.50~3.75%) 유로존 2월 전년대비/전월대비 CPI 발표 (최종) (E --/--, 1월 1.9%/0.7%) 한국 2월 실업률(계절조정) (E --, 1월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BOJ 금리결정 (E --, 이전치 0.75%) 유로존 ECB 금리결정 (단기수신금리/기준금리/한계대출금리) (E --/--/--, 이전치 2.00%/2.15%/2.40%) 미국 3월 2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존,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